

는 한이 풀리지 않고 생생하게 남아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런 마당에 이런 형식적인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용납될 것인가! 단지 이런 형식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은 강력한 로마제국과 유다교를 의식하고, 그 안에서 제도화된 교회의 존립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사실과도 그리고 예수의 민중의 감정과도 크게 유리되는 표현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복음서의 수난사와 비교하면 더 확실해질 것이다.

2) 필립비서 2장 6~11절

이것은 이른바 ‘그리스도 찬가’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상당히 일찍 형성된 케리그마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공인되어 있다.¹⁶⁾ 이 찬가는 시구(詩句)로 나누어질 수 있을 만큼 운율적이다.¹⁷⁾ 그것은 그 내용상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시구는 선재자(2, 6~7a)에, 둘째 시구는 수욕자(2, 7b~8)에, 셋째 시구는 올라온 자(2, 9~11)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 형식으로 사변화한 것은 벌써 역사적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사변화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다.

이 찬가의 삶의 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우선 팔레스틴 영역이라는 견해와 헬레니즘 영역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¹⁸⁾

16) O. Hofius, *Der Christushymnus Philipper 2, 6~11*, J. C. B. Mohr / Tübingen, 1976, S. 1.

17) 분석은 O. Hofius, *op. cit.*, S. 20ff. 참조.

18) R. Deichgräber, *Gotteshymnus und Christushymnus in der frühen Christenheit*, Vandenhoeck & Ruprecht / Göttingen, 1967, S. 126ff. 참조. 다이히그레버는 그것이 팔레스틴 갈릴래아일 것이라는 로마이어의 주장에 반하여 언어적으로 보아서 출처가 헬레니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견해를 인정한다면 이것 역시 지역적 격차에서부터 온 사변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리라는 가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 찬가가 불리어진 현장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이다. 로마이어(E. Lohmeyer)는 이 찬가가 불려진 현장은 성만찬 마당(Abendmahlsfeier)¹⁹⁾이라고 보며, 이에 반해서 예르벨(J. Jerbell)은 예배현장이었을 것이라고 한다.²⁰⁾ 이 그리스도 고백의 현장이 일반적 역사현장과 구별된 종교의식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두 견해는 같다.²¹⁾ 이것도 예수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난 다음 단계에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한다.

내용상으로 보아서도 그것이 예수사건의 역사성을 희미하게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찬가의 내용상 그리스도의 선재와 다시 그 위치로의 환원(곧 부활) 사이에 있는 수육과정 속에 예수 수난의 장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수육한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수난의 현장이 어떠했는지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8절 끝부분(8절c)에 있는 “십자가에 죽으심”(θανάτου δὲ σταυροῦ)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로가 첨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²²⁾ 이에 대해서 호피우스(O. Hofius)는 그 구절의 원래성을 입증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²³⁾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이 아니라 비록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어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충격을 준 ‘죽임’의 사건으로나, 혹은 그것 자

19) E. Lohmeyer, *Kyrios Jesus*, Neudruck, Parmstadt, 1961, S. 65f.

20) J. Jerbell, *Imago Dei*, FRANT 76, Göttingen, 1960, S. 206ff.

21) E. Lohmeyer, *op. cit.*, S. 133.

22) *ibid.*, S. 8, 44ff.

23) O. Hofius, *op. cit.*, S. 3ff.

체가 독립된 구원사건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²⁴⁾ 호피우스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원래적이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하여 그와 비슷한 형식의 하느님 찬가들을 예로 드는데, 그것이 맞다면 바로 그것은 역으로 그리스도 찬가가 역사적 사건과 먼 거리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왜 죽임을 당했는가를 생략한 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만 할 경우, 고린토전서 15장에서의 “성서대로”와 같이 “하느님께 철저히 복종했다”는 뜻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같은 그리스도 찬가의 범주에 속하는 디모테오 전서 3장 16절이나 히브리서 12장 2절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사도행전에 나타난 케리그마

디벨리우스는 사도행전에서 원초적인 케리그마의 원형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들은 2장 22절 이하, 3장 13절 이하, 10장 37절 이하, 13장 23절 이하이다.²⁵⁾ 도드는 대체로 그를 추종하면서 여기에다 4장 10절 이하를 첨가하고 있다.²⁶⁾ 이들이 지적한 케리그마의 성격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예수의 죽음과 하느님이 그를 다시 살려 일으켰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 그러나 바울로가 전승한 케리그마와 비교하

24) 이상과 같은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관해서 O. Hofius, *ibid.*, S. 13의 주 42 참조.

25) M. Dibelius, *Die Formgeschichte des Evangeliums*, S. 15. 디벨리우스는 사도 5, 30 이하도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이방인에게 행한 설교인 14, 15 이하와 17, 33 이하도 언급하고 있으나, 그 구절을 일반 케리그마와 구별하고 있다. 볼트만 역시 사도행전에서 케리그마의 원형을 사도 2 · 22~24 · 3, 13~15 · 10, 37~41 · 13, 26~31에서 본다(R. Bultmann, *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Göttingen, 1957, S. 396).

26) C. H. Dodd,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 p. 22.